

우리나라의 영양문제와 질병현상과의 관계 : 절약형질 이론의 중요성

이 홍 규

국립보건원 특수질환부장, 서울대 교수

1980년대 영국의 Barker등은 아기의 태내 영양이 그 아기의 일생 건강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혔고, 이제는 정립된 이론으로 확립되었다. 절약형질이란 영양부족 상황에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소모가 적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체질이 되지만, 영양과다에 노출되면 당뇨병, 고혈압, 비만증 및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일으키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데, 첫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1980년대 이후의 성인병 유행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회담이 진행되는 오늘날 이북의 동포들이 갑작스레 영양과다(?-상대적인 것이다)에 노출되면 이들이 곧장 당뇨병등을 발생할 것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함의는 아마도 이 이론을 통한 성인병들의 예방가능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산모의 영양, 나아가서는 임신전 여성들에 대한 영양교육은 우리들의 후세가 건강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나, 아직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은

영양학계가 풀어갈 극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여성들이 비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행에 따라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나, 근거없는 다이어트의 광고가 건강전문지를 도배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통탄할 일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립보건원에서 이러한 절약형질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의 형성부족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증명에 과거 7년간의 시간을 바쳐왔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자료들을 얻었다. 절약형질이 생기는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이해하는 것은 그 치료법을 쉽게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장기적으로 더욱 정확한 예방법과 치료법을 알 수 있게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국민영양의 제 문제의 핵심에 절약형질 이론이 존재함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